



## 광주지방경찰청 신설 확정

### 黨政 합의...6과 3담당관 체제 376명 규모

#### 與, 내년 예산 반영 요구

광주·전남지역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광주지방경찰청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당정협의를 열고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지방경찰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양형일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전남경찰청의 범죄발생건수는 13만3천여 건으로 서울, 경기청에 이어 가장 많으며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치안과 행정기관의 이원화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내년 예산에 광주청 신설 예산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와 대전에만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지 않는 등 신설 요건은 충분하다'며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경찰청에서의 신설 건의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기획예산처의 예산 미반영으로 좌절됐던 광주지방경찰청의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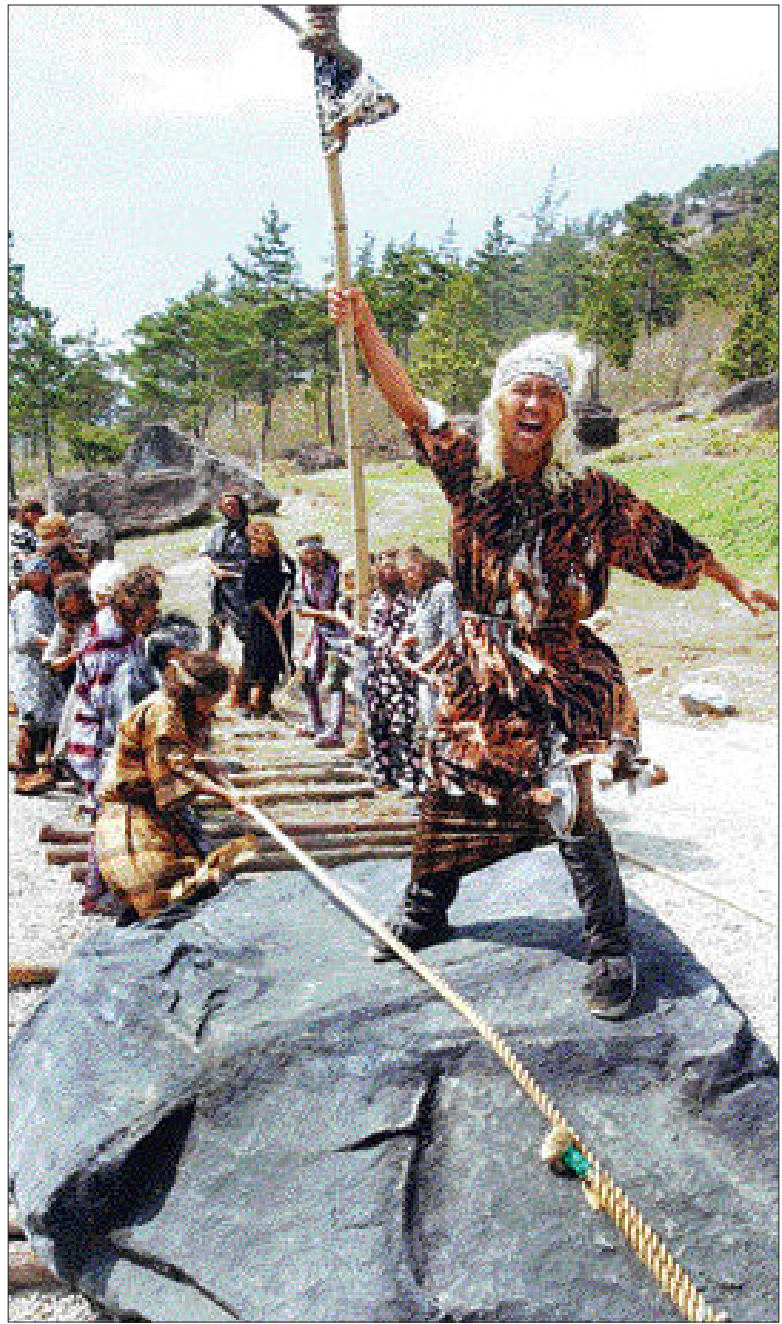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007년 완공 예정인 광산구의 전남경찰청사를 사용하고 전남지방경찰청은 남악신도시에 마련돼 있는 부지로 신속이 전될 예정이다. 필요 인력은 청장(추안간) 아래 1차장(경무관), 6과, 3담당관 체제로 운용될 예정이며 필요

인력은 경찰관 333명, 일반직 8명, 기능직 35명 등 총 376명이다. 소요 예산은 인사 청사 운용에 32억원, 본청사 신축 490억원 등 총 522억원이다.

국회 행정위원회 양형일 의원은 '경찰법에 '광역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둔다'는 조항이 있

었는데도 지금까지 광주지방경찰청 신설이 늦어진 것은 유감'이라며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광주지방경찰청 신설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인들과 함께하는 선사여행 2006 화순 고인돌축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순 춘양면·도곡면 일대 고인돌 공원에서 20일개막했다. 마을을 이끄는 제사장의 장례식때 고인돌을 축조하는 과정이 선사시대 방식대로 재현되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 지역특화 산업보증 업종 확대

#### 신보, 광주·전남 21개로

지역특화산업보증 대상업종이 확대돼 광주·전남지역내 관련 업종의 보증 확대와 기업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0일 광주·전남 등 13개 권역별로 나눠 운영중인 지역특화산업보증 대상을 101개에서 154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상업종중 운용실적이 낮은 8개 업종을 제외하는 대신 57개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광주지역 특화산업보증 대상 업종은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과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등 11개로 이밖에 '전자응용 및 금속가공공작기계 제조업'과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이 추가됐다.

전남은 '차류 가공업' 등 10개 업종이며 '도로화물 운송업'에서 용달 및 개별화물과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서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가 제외됐다.

지역	특화업종
광주 (11개)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탕크 및 중기발전기 제조업,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전자응용 및 금속가공공작기계 제조업, 기타 특수용 적용 기계 제조업,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업지원서비스업(텔레마케팅 제외)
전남 (10개)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차류 가공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기타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제외),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정제, 제지제 불경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탕크 및 중기발전기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도로화물 운송업(용달 및 개별화물 제외), 해상운송업

신보는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 특화산업보증으로 총 2천850억원을 공급했으며 올해는 보증공급액을 3천300여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특화보증을 우대부분 보증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으며 보증한도도 15억 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대상업종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 5·31지방선거 D-40

### 우리당 중앙당 지도부 선거전 지휘 시장·지사가 4대 선거 총괄

#### 민주-우리당 선거전략 엮갈려

5·31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선거의 사령탑을 맡았다. 양 시장·지사가 시·도지사 선거는 물론,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아우르는 4대 선거를 총괄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앙당의 입김이 강하다.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는 중앙당이 지원한 서범석 전 교육부차관으로 이미 정해진 데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방식도 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원하는 '100% 시민 여론조사'로 결론 내렸다.

이같은 전략차이는 현재 양당이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 때문

이다. 민주당은 공천 잡음 등으로 인해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후보에 뒤지는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중앙당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민주당은 현직 시·도지사가 총대를 댔다.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로 각각 확정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말 광주에서 공동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까지 함께 참여하는 필승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행하는 두 후보 개인을 위한 선거 전략 보다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 바람'을 일으켜 당과 당 소속 다른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가 짙다.

광주지역의 경우 박 시장과 5명의 구청장 후보가 공동으로 선거 전략을 마련하고 공약 개발과 로고송도 함께 사용한다. 전남 역시 박 지사와 22명의 시장·군수 후보가 호흡을 함께 맞춘다.

민주당에 비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낮은 열린우리당은 지역 구 국회의원들이 나서 시·도지사 후보를 천거, 경쟁 구도를 만들고 중앙당 지도부가 직접 선거전을 지휘,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당 지도부의 대규모 세력이 대표적이다. 정동영 의장 등 당 지도부와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달 21일 여수에서 '여수의스포유치와 광양항 활성화 대책'을, 광주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를 각각 열었다. 여당으로서 공약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日 외무차관 오늘 訪韓

#### 韓-日 'EEZ 갈등' 본격 외교 교섭

일본 외무성의 아치 쇼타로 외무차관이 21일 서울을 방문,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이 해소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20일 공식·비공식 외교접촉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20일 한일 어업협정 폐기와 독도를 기점으로 새로운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일본이 독

도 주변 EEZ 측량계획을 철회하더라도 IHO(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의 독도 주변 해저 지명 변경은 계속 추

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EEZ 경계나 해양 과학조사를 둘러싼 분쟁이 한 국가의 일방적인 제소로 인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언서를 지난 18일 유엔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후원학원 장학 5.6년 원시만 장학

남부대학교  
http://www.nam.ac.kr

새로운 미래를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행정동선 (088-2051) ▶ T.081-360-5000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 행정동선 (088-2051) ▶ T.081-360-5000

光州日報 창사 54 1952-2006

우리가 숨쉬는 곳 그곳이 바로 자연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

주식회사 이화산업 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水)처리제 및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기업-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365일 당신의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株式會社 二和産業 E.HWA IND.CO.LTD

■ 본사·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546-13 TEL:(062)951-3717~9 FAX:(062)951-3720  
■ 여수공장: (061)686-4877~8  
■ 대불공장: (061)462-3717~8